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익산시, 함라산·미륵산·천호산 등 주요산림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익산시가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단풍철을 맞아 산림 이용객이 증가하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2월 15일까지 평일 오후 9시, 휴일 오후 7시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함라산, 미륵산, 천호산 등 주요 산림과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13명을 배치해 현장밀착형 산불예방 및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무인감시카메라 4대와 산불감시원을 주요 임도 및 등산로에 배치하여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 조기발견에 집중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를 위해 산불진화 차량 4대와 기계화시스템 50대 등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수가 끝나고 농가에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야와 인접(100m 이내)한 전·답에서 발생한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사업(11월~12월)을 추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가을은 적은 강우량과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산불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산불 발생 시 산림과(☎ 063-859-7599, 5883, 5888) 및 소방서(119)로 즉시 신고해야 하며, 과실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홍경 연변주정부 주장 및 전규상 천우그룹 이사장 등 14명으로 구성된 연변주정부 방문단이 식품 관련 선진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익산을 방문했다.

익산, 식품정책 중국까지 뻗어나가

연변주정부 방문단, 하림산업·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식품 산업지 견학

글로벌 식품도시 익산시의 식품정책이 중국에까지 뻗어 나간다.

시에 따르면 지난 31일 홍경 연변주정부 주장 및 전규상 천우그룹 이사장 등 14명으로 구성된 연변주정부 방문단이 식품 관련 선진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익산을 방문했다.

연변주정부 방문단은 하림산업에서 진행되는 밥 키친투어에 참여하여 즉석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즉석밥 시식체험도 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익산시 현황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운영·관리 방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등을 살펴봤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글로벌 식품도시 익산을 방문한 연변주정부 방문단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식품산업이 보다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변주정부 방문단은 익산 방문 후, 군산의 산업단지 시찰 등의 일정을 마친 후 돌아갔다.

한편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 북동쪽의 지린성 내에 위치한 자치주이며, 약 200만명이 살고있는 도시이다.

또한 중국 최대 조선족 거주지이며, 한국어와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소 렘피스킨병 차단에 총력

축산 관련 사람·차량·역학 관련 농가 이동제한 등 6건 행정명령 시행

군산시가 지역 축산농가의 안전을 위해 렘피스킨병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31일 시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소 렘피스킨병이 지난 20일 충남 서산 소규모 한우 농장에서 발생, 경기, 충남·북을 거쳐 24일 인천, 강원 지역까지 전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25일 전북도 최초로 부안에서 발생했다.

렘피스킨병은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 등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소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선 제 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모기 등 흡혈곤충이 질병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질병 발생은 지난 9월 중순경 해외 유입 흡혈곤충에 의한 것으로 추

정되고 있으며, 최초 발생지역인 서해안을 중심으로 당분간 추가 발생 및 확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가축전염병 위기 단계 중 최고 단계(심각)로 격상됨에 따라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질병 발생으로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stand still)과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6건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아울러, 렘피스킨병의 전파매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읍면동에서 보유한 연무 소독기를 우선적으로 이용해 12개 읍면동 219호 소 사육농가 주변으로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파매개 곤충의 활동이 둔화되어 소멸하는 예상일인 11월 초순경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

이다.

시는 농장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전파예찰 등 차단방역 홍보 및 특이 증상 조기발견을 위한 공수의 현장점검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립축산식품부에서 긴급 수입한 렘피스킨 예방백신을 주말인 27일, 28일 양일간 배정받아 편성된 소규모 농가 백신접종반 4개 반 및 전업 규모 농가에 신속하게 공급, 오는 11월 3일까지 관내 사육 소 전두수에 접종을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매개곤충 방제,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및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주어야 한다"며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가축방역기관(1588-4060)으로 즉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2023 익산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2023 익산농업기계박람회'가 지난 31일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업인과 농기계 업체 및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강진 농업기계화회장의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장의 개회사, 정현을 익산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오택립 전라북도 미래산업국장 최중호 익산시장 등 축사가 이어졌다. 개막식 공식 행사는 농기계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장관상 등 포상 수여, 주요 참석자들의 테이프 커팅식, 박람회 개요 설명 후

전시관 관람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 2013년 개최를 마지막으로 10년 만에 익산에서 개최된 이번 박람회에는 1만8000㎡의 전시규모에 194개 업체가 참가했다. 400여 종의 다양한 농업기계 및 농자재를 전시하여 우리나라 농업기계 분야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농업인과 농기계 생산업체 간의 정보교류의 장을 이루었다.

11월 3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트랙터, 이앙기, 친환경 전기 무인 자율방제기 등 자율주행 농기계 연시와 농기계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체험 등을 통해 첨단 농기계들을



한 눈에 경험해 볼 수 있다.

또한 익산 관광 및 우수 농특산물 홍보관 시설완성 수출 활성화 세미나, 참관객 경품추첨 행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해 박람회장 찾은 방문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 성료

군산시는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만들기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학안전 주간 기념식과 컨퍼런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지 영상 시사회, 이차전지 이해 설명회와 좌담회, 생활과학교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홍보, 기업체 화학안전 자율점검, 재난대응 훈련 등 다양한 행사로 이뤄졌다.

시민사회 단체, 기업체, 시, 화학물질 안전원 관계자가 패널리스트로 참여한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 만들기'란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화학안전에 대해 보다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뜻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에 수반되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방안 마련을 위한 '이차전지의 이

해 특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화학안전 대비 좌담회'는 그동안 시와 화학물질안전원, 새만금개발청이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와 상담 등 많은 관심으로 좌담회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또,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에 의한 주민고지 내용이 어려워 주민에게 쉽게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등 주민행동요령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고지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 홍보해 신선한 반향을 이끌어 냈다.

정대현 환경정책과장은 "화학안전주간 행사가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나은 안전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화학안전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CCTV 관제센터 112·119 실시간 연계

익산시가 CCTV 관제센터에 112·119와 실시간 연계되는 통합플랫폼을 개통해 도시안전망을 구축했다.

통합플랫폼은 긴급구조·출동 지원, 범죄·화재 예방,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112와 119를 연결해 시민 안전을 지킨다.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현장 주변 영상과 용의자 도주 경로 정보 등이 바로 제공돼 신속한 범인 검거가 가능하다.

화재현장 출동 소방관은 현장 영상·위험시설물 설치 현황·교통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현장 도착 전에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모현동 교통정보센터 1층에 있는 CCTV 관제센터는 관제요원 12명이 24시간 2교대 근무하면서 CCTV 3,108대를 모니터링 상황발생시 즉시 112·119에 신고하여 범죄 및 사고예방에 힘쓰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체력인증센터, 유아기 체력측정·운동처방 호응

군산체력인증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아기(만 4세~6세)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가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체력인증센터는 만 4세~6세 유아권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를 지난 2022년부터 국민체력100 시범사업에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 체력인증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는 출장측정과 단체 내방측정 등 약 300여명의 유아가 참여했다.

유아기 체력측정은 신체조성을 시작으로 △근력(상대어력), △근지구력(윗몸밀어리기), △심폐지구력(10m왕복오래달리기), △유연성(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민첩성(5m왕복달리기),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협응력(3*3버튼누르기) 등 총 7가지를 측정해 유아의 체력상태를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